

지능형컴퓨팅 국제학술대회 울산서 개막



지능형컴퓨팅 국제학술대회 열려

(울산=연합뉴스) 이상현 기자 =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지능형컴퓨팅학술대회에서 일본 규슈대 하세가와 교수(오른쪽)가 '일상생활 속에 함께하는 서비스 로봇의 플랫폼'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.

2009.9.17

leeyoo@yna.co.kr

(울산=연합뉴스) 이상현 기자 = 전 세계 지능형 컴퓨팅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한 '제5회 지능형컴퓨팅 국제학술대회(ICIC 2009)'가 17일 오전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막했다.

한국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주최하고 울산대학교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15개국 200여명의 학자가 참가해 인공지능, 지능형 패턴인식, 진화하는 컴퓨팅 등의 분야와 관련한 1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.

이날 대회에서 일본 규슈(九州)대 하세가와(長谷川勉) 교수는 '로봇타운 프로젝트-일상생활 속에 함께하는 서비스 로봇의 플랫폼'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.

이어 폴란드 브라츨라프 공과대학 녹 탄 응웬(Ngoc Thanh Nguyen) 교수가 '알고리즘과 응용의 모호한 분류', 한국과학기술원 권인소 교수는 '강인한 컴퓨터 비전의 기법과 응용'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.

울산대 조강현 교수팀은 악천후에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관한

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.

이 학술행사는 9일까지 울산에서 계속된다.

이 대회는 지난 2005년 중국의 허페이(合肥)를 시작으로 2006년 쿤밍(昆明), 2007년 칭다오(靑島), 2008년 상하이(上海) 등에서 개최됐다.

leeyoo@yna.co.kr

(끝)

<저 작 권 자(c)연 합 뉴 스. 무 단 전 재-재 배 포 금 지.>

[2009-09-17 11:31 송고]

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제를 금합니다.
Copyright (c)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.